

“광주·전남은 한 몸 ... ‘상생 벨트’로 다시 없는 기회 꼭 살려야”

전문가 좌담회

광주·전남은 ‘청마의 해’ 지역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KTX 호남선 개통, 아시아문화전당,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이하 빛가람 도시) 완공’ 등 3대 役事(役事)를 주제로 진행상황과 문제점, 효과, 타 지역 사례 등을 점검해 14회에 걸쳐 심층기획시리즈로 연재했다. 3대 대형사업을 지역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서다.

이어 이번 기획보도를 결산하는 의미로 박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과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혁신도시·KTX·문화전당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은 윤현석 광주일보 사회2팀 차장의 사회로 11일 광주시 동구 무등빌딩 14층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좌담회 내용을 요약한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준비는 어떠한가.”

▲박병호 실장=3대 사업 모두 올해 완공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 3대 사업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시민협의체 등을 구성해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KTX 개통에 대비해서는 도시공간과 교통체계, 문화·관광, 유통·쇼핑, 의료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 준공되는 만큼 내부 채워넣을 콘텐츠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화전당이 국가 사업으로, 콘텐츠 제작도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광주시도 광주·전남의 정신과 문화·예술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빛가람 도시와 관련해선 한진 등 15개 기관이 들어오는 데 만족하지 않고, 관련 기업체와 기관 등을 유치하는 전략을 마련 중이다.

▲이건설 원장=아시아문화전당과 관련, 전남에서도 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중이다. 외지분들이 광주(문화전당)를 방문하고, 나

주 등 전남권에 머무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문화전당이 단순히 국내 시장을 위한 것이 아닌 아시아권을 겨냥한 국립 시설이라는 점에서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 상생 벨트 조성을 제안하고 싶다. KTX 호남선도 대책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은 사실상 한 몸으로 시대적인 변화에 대비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빛가람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시·도가 공동으로 만든 혁신도시다. 한진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들어온다. 하지만, 지역에서 한전을 활용할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되물고 싶다. 기관 이전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할 때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가.”

▲이건설 원장=우선 KTX 정차역 등의 문제가 풀려야 한다. 정차역 문제가 선거등과 연계되다보니 광주역이나 나주역 경우 문제가 지역 여론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역 발전에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KTX 시대를 앞두고 지역 여론이 분열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또한, KTX시대를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렀으면 한다. 수도권(서울)과 2시간 거리이면 시·도민이 과거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목적을 만들게 된다. 병원 진료차 서울에 가는 도중에 계획이 없던 쇼핑을 계획하고, 식사 약속을 잡게 되는 식이다. 따라서 광주·전남은 명품 프리미엄 아웃렛과 은퇴자타운 등 수도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쇼핑객(자본)이나 의료 시장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지역으로 가져올 수 있다.

다만, 광주와 전남이 특정 사업을 주제로 모이면 자부 행정구역적 개념만 따지는 데 이제는 그 틀을 깨야 한다. 담양이나 나주 등의 지역



박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시·도 구분 무의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인근지역 생활권 묶어
행복생활권 개발을

광주·나주 사이에
기업유치 단지 필요
이전기관 직원 환영
지역화 유도해야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장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무등빌딩 14층 광주일보 편집국 회의실에서 ‘혁신도시·KTX·문화전당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윤현석 광주일보 차장, 이건설 전남발전연구원장, 박병호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박진표 광주일보 기자.

민을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한다. 전남 담양보다는 광주 담양군이 더 잘 어울린다고. 광주와 전남은 행정적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문화전당 부분도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문화하면 가장 지방적이고 향토적인 것이 국제적인 경쟁력이다. 전남의 우수한 향토 문화가 얼마나 많은가. 콘텐츠 제작에 지역의 민간 향토사학자 등이 많이 참여했으면 한다.

▲박병호 실장=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문화전당이나 KTX, 빛가람 도시는 광주·전남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도 자치단체간 연계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오늘 광주일보(11일자 1면)에도 나왔지만,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인근 지역을 묶어 개발하는 ‘행복생활권’이 그 답이다. 광주·전남은 한 뿌리다. 이걸 나눠서는

답이 안 나온다. 광주와 전남은 현재도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 시·도간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시된 만큼 상생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하고 있다.

-3대 역사와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없다.

▲박병호 실장=KTX 호남선 개통과 관련해 송정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 아시

아문화전당과 관련해서도 콘텐츠 구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바란다. 법인화 등 논란이 된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박해자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발의한 문화전당 운영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반영해 줬으면 한다. 빛가람 도시와 관련해서도 관련 기업과 기관, 연구소 등이 광주·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줬으면 한다.

▲이건설 원장=3대 역사는 공고롭게 참여정부 때 이뤄진 것이다. 이후 MB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로 오면서 이들 사업을 하게 된 의미를 잊는 듯 해 안타깝다. 정부에서는 왜 이들 3개 사업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음미해 봤으면 한다. 문화전당은 광주를 한반도의 문화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문화산업 자제를 광주·전남으로 몰아줘야 한다. 정부는 “그냥 문화전당 건물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빛가람 도시에도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정부

의 빛가람 도시 정책에 대해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유치 당시에 광주·전남의 공동 유치를 높게 평가해 향후 추가 지원을 약속했는 데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추가 지원은 커녕 제대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정부에서 도시 조성 당시 당연히 지원해야 할 도로와 용수, 하수도 시설 등의 비용도 현재 지가에 반영된 상태다.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묻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시설은 꼭 사전에 확충해 줬으면 한다. 정부에서 110억 원만 지원해주면 교육시설의 선 공급이 가능하다.

-3대 사업이 광주·전남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박병호 실장=광주가 잘 살 수 있는 최대의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본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큰 국가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오기는 힘들 것이다.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해다. 민주·인권·평화를 상징하는 의로운 땅인 광주·전남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KTX 호남선이 본격 운행되는 2015년에는 문화전당이 정식 개관하고, 광주 U대회와 국제디자인인명 총회 등 굵직한 국제 행사도 열린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광주·전남은 어느 지역보다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광주시와 시민들이 대비를 잘한다면 광주·전남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이건설 원장=광주·전남이 낙후됐다고 하는데, 글로벌 기반은 전국 최고다. 여수 엑스포 등 국제 이벤트를 연달아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광주에선 내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비롯, 2019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글로벌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이제 광주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중추도시로 부상할 시점이다. 다만, 세계적으로 공황이나 환란이 없는 도시가 중추도시로 발전한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광주는 항구가 있는 목포 등과 공동권역으로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KTX 시대, 문화전당, 연이어 예약된 국제 이벤트. 이 정도면 광주의 미래는 너무 밝지 않은가. 다만, 홀로 가기에 힘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광주·전남이 상생 발전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빛가람 도시와 관련해 지역민들은 한진 등 입주 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겨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나 간부들도 수시로 해당 기관 직원들을 접촉해 국가기관이 아닌 광주·전남 산하 기관의 직원이라는 착각에 빠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종사 직원의 지역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지역의 미래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된다.

/정리=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전남 미래 바꿀 3대 役事 제대로 준비하려면



혁신도시
교육시설 가장 중요
정부 110억 지원하면
선 공급 가능하다



KTX
정차역 문제 풀려야
행정구역 따지지 말고
쇼핑·의료 유리하게



문화전당
전당 관광 외지인들
전남서 머무를 수 있게
프로그램 마련을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원서접수
2014년 2월21일(화)~24일(일)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605-1114

원장이 직접 챙기는 기숙학원 - 서울케이스사관학원

내 자식처럼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합격생들이 서울케이스사관을 말합니다.

원장님께서 세 성적은 물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한번쯤 딴 생각을 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면 어김없이 원장님께 호소를 당했고, 속마음과 고민까지도 관리(?)를 받았습니디.

정재훈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합격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해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개인별 독서대가 배정되기 때문에 자율학습할 때 쾌적하게 학습이 가능하고, 시험장과 거의 흡사한 환경에서 모의고사도 봅니다.

정자신 -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교육과 합격

원장님이 수능 3주 전에 과목별 출제 예상 내용을 원장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적중도에 놀랐고, 특히 언어 지문 예언에 저는 정말 탄복하고 감격하였습니다.

황두현 - 고려대학교 합격

“원장과 모든 학과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숙식하면서 목표를 쟁취하도록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요령, 공부하는 습관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사관학교

- 원장, 그리고 학과 선생님과 학생이 24시간 함께 합니다!!!
- 토·일요일, 국경일, 추석연휴에도 정상 수업!!!
- 성공! 오직 공부만! 연간 휴가 단, 9박 10일!!!
- 국어는 국어만으로, 수학은 수학만으로, 영어는 영어만으로 각 과목별 수준 반편성 실시!!!

재도전! 조기 특강반

개강! 2014년 2월 16일(일), 2014년 3월 1일(토)
대상!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 사관학교 지원 예정자
상담! 상담실(055.585.5003) www.scoa.co.kr

※ 원장과 학과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기숙합니다!

원장직통 010.9177.4522 상담실 055.585.5003